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 2

내일부터는 핫카이드입니다. 일주일이 긴 지 짧은 지 느낄 새도 없이 요즘은 여행 중에 또다시 여행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제까지도 떠돌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위화감 없이 지금과 같은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 때를 위해 단련시킨 준비기간이었던 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인생 바로 그 자체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행도상에서 그 순간 순간에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 기뻐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 3월 11일 지진 재해 이래 우리들은 계속해서 여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행 그 자체가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너무 슬프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해 온 것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과연 목적지에 도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 나머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흘려버렸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보다는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눈물을 닦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이야말로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들이 웅크리고 있을 때나 떨고 있을 때나 다시 일어설 때나 기쁨으로 총만할 때 이 모든 것 하나 하나를 하나님은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응시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 힘들어 하곤 합니다만 가령 우리들의 바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기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고 탄식하며 약해질 때마다 주께 매달려 나그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 그 자체에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여행은 언제 끝나겠는지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지요. 주님이 하늘천국에 고향을 마련하시고도 오히려 우리들을 이 지상에 두고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여로가 긴지 짧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여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헤매이며 주님께 매달려 필사적으로 이어지는 나그네 길의 여정을 모두

통과한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의 고향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은 아닌지요?

아직도 모르고 헤메이는 중에서도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몸을 의지하며 여행이 계속되는 우리들을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리가오카교회에서 돌아가는 길에  
사토 아키라(佐藤 彰)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 3

한 주간의 홋카이도 투어를 마치고 JAL 편을 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 동안 총 7 차례의 집회를 출판사 분들과 함께 돌았습니다. 지진 재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험은 하지 않았으리라는 일들이 앞으로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순회를 한 적은 있었습시다만 한 메시지를 들고 출판사 분들과 이 곳 저 곳을 방문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책의 판매와 연결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신인가수가 신곡을 가지고 프로모터와 함께 각지의 레코드점을 방문하여 어필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영화 「남자는 괴로워」에서 寅·ToLa 씨가 각지를 떠돌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 강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콘서트 때 흔히 볼 수 있는 악수회 같은 그런것이 없어서 영상을 통한 강연 시간은 한 시간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피폭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증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기됐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제껏 이렇게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자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인가라고 문득 생각하곤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인생 만년에 원치 않는 곳에 가게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좋아서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 유랑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낯선 곳에서 가만히 숨죽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박해의 폭풍이 난폭하게 불어와 그 거친 물살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렸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신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길에 들어서 그 곳에서 양육되고 숙성되어 자라나는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재 확실히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겠지요.

각 그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화산 분화나 세계공황이나 이상 기온등 고르지 않은 험난하고 걷기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 곳곳에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통과시키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그것은 이 곳 지상 세계가 임시 숙소인 피난처일 뿐, 최후로 우리가 안착할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각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인생의 도정에서 가족과의 이별이나 실직 그리고 또한 사건이나 사고에 말려드는 등 눈보라 치는 곳에서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도난의 길을 모색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이 하나 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지진 재해도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 힘껏 뛰어들기 위한 점프 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8 월 6 일(토) 홋카이도 상공에서  
사토아키라(佐藤 彰)